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박 명 윤**

현 중 민***

- I. 서 론
- II. 분석결과
- III.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그룹간, 세대간의 갈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젊은 청년세대가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내일의 국가동량이 될 젊은 세대가 기존의 사회체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즉 의구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

정하느냐 또는 비판의식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냉철하게 꿰뚫어 보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청년층의 의식구조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정치경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셋째, 사회의 여러 요소들, 특히 기성세대가 이들을 위해 내놓은 여러 사회정책들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넷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이 청장년들을 어떤 유형의 계층별, 지역별, 그룹별 특성으로 형성시켜 놓았는가? 다섯째, 청년들의 의식구조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어떠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연구원과 한국민주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1990년대 청년정책방향연구"중에서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관한 부분임.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민주문화연구소 이사장(연구원 : 전성연, 박윤재, 이정진, 홍순길, 백광일)

한 대안이 수립될 수 있는가? 여섯째, 청년 의식구조의 제요소가 사회 전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일곱째, 이 조사연구에서 나온 대안들이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국가목표와 사회목표에 어떤 공헌을 할것이며 더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서기 2000년대를 향한 새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성인들이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 청년들의 의식구조를 알아보고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대안을 내놓고자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1990년대 청년정책 방향 연구”이었으나 부분적으로 발췌 요약을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조사”로 바꾸었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 개별성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찾아나가는 매우 포괄적인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성되고 나타나야 하는가가 중점적으로 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평등해야 할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개인 또는 그룹사이에 평등해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어떻게 이루고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이 자주와 자존과 행복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모든 소외된 계층과 개인들에게 그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가도 이번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성인들의 노력속에서 차세대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은 올바른

사회 의식과 국가관념을 확립해 나가리라 믿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조사연구는 우리사회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계층인 18~39세의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연구영역을 청년들의 일반적 가치의식,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 경제현안 등에 관한 인식, 외교 안보 통일관련 문제들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식과 정치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들 의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응답자 개개인의 사회화 과정 및 사회적 배경들도 조사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 방대한 조사의 결과를 다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약된 부분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3. 연구방법

1) 표집의 방법

본 조사연구에 있어서 전집의 의견을 가장 충실하게 조사하는 방법은 물론 18~39세의 우리나라 청년 모두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짧은 연구기간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표집을 하였고 표집된 대상으로부터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8~39세의 청년이다.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에서 가구를 조사단위로 할 때,

가구의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단순 임의 추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 조사에서는 행정구역을 이용한 시·도 및 동·면의 2단 집락 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표본집락의 편중을 막고 추정값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층화 2단 추출을 실시하였다.

2)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층비례 배정인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n = \frac{N \sum_k N_k P_k (1-P_k)}{N^2 (d/z)^2 \sum_k N_k P_k (1-P_k)}$$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수, N_k 는 각 층의 수, d 는 허용오차, Z 는 표준 정규 분포 변량, P_k 는 각 층의 모비율이다. 6개의 특별시 및 직할시와 8개도를 층으로 하여 허용오차를 2.5%로 하였을 때 95%의 신뢰도를 갖기 위한 n 은 대략 1500명이다. 2단 집락 추출시 표본의 최적 배정을 위한 비용함수는 일반적으로

$$C = C_0 - nkC_1 + nk \cdot mk \cdot C_2$$

이다. 여기서 C_0 는 고정비용이고, C_1 은 1단계 표본 하나를 추출하기 위한 비용이고, C_2 는 2단계 표본 하나를 추출하기 위한 비용, nk 는 1단계 표본 추출 단위의 수, mk 는 2단계 표본 추출 단위의 수이다. 표본의 최적 배정공식

$$mk = \frac{S_{wk}}{S_{bk}} \sqrt{\frac{C_1}{C_2}}$$

를 이용한 본 연구의 최적 mk 는 대략 10이다. 즉 150개의 2차 추출 단위가 필요하다.

3) 표집절차

① 6개의 특별시 및 직할시와 8개 도를 층으로

했을 때 인구비례에 의한 각 층별 집락의 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37) 부산(13) 대구(8) 인천(6)
광주(4) 대전(5) 경기(19) 강원(7)
충북(5) 충남(6) 전북(8) 전남(8)
경북(11) 경남(13) 계 150개

② 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시에서는 동을, 도의 군에서는 읍·면을 각 층별 집락의 수만큼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③ 이들 표본 동·면에서 주민등록부를 열람하여 18~39세의 청년이 있는 1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원이 직접 호별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면에서 2단계 표본 추출시 성 및 연령에 근거한 할당 표집을 하였다. 성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6:4로 하였다.

4) 표집결과

본 연구는 1990년 7월 한달간의 예비조사 및 질문서 작성기간을 거쳐 8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협력대학의 대학생들을 면접조사원으로 고용하여 교육시킨후 2주간 집중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수집된 표본의 수는 1494명이었다. 이들을 남녀 별로 보면 59:41였으며, 나이별로는 18~25세 47.1%, 26~33세 35.8%, 34~39세 17.0%로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많이 표집되었다.

II. 분석결과

1. 사회가치관

최근 우리사회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어 서구의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도 많이 변화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의식구조가 얼마 만큼 서구의식화 되었는지 개인주의 성향, 가부장적 역할, 순결관, 결혼관 등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주의 경향

“식당에 갔을 때 각자 돈을 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이 61.3%, 반대가 2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대, 30대, 결혼 유무, 종교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를 남,여별로 보면 남자는 찬성 56.6%, 여자는 찬성 68.3%로 여자가 높고, 또 학력별로

는 대학재학 이상(찬성 63.4%)이 고교학력 이상(찬성 59.4%), 중졸 이하(58.1%)보다 약간 더 찬성률이 높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자에게 더 개인주의 경향이 많음을 보여준다. 직업별로는 교사(찬성 71.4%), 의사·약사 등 전문직(찬성 78.3%)종사자들의 찬성률이 기타 직업보다 훨씬 높다.

2) 가부장 역할의 약화

“부모의 의견이 다를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이 32.3%, 반대가 40.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자(찬성 37.8%)와 여

〈표 1〉 개인주의 경향

	계	성 별		학 력		
		남	여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제이상
찬 성	61.3	56.6	68.3	58.1	59.4	63.4
중 립	13.4	14.2	12.2	19.4	12.7	12.8
반 대	25.3	29.2	19.5	22.5	27.9	23.8
계 (실수)	100.0 (1498)	100.0 (880)	100.0 (609)	199.0 (129)	100.0 (621)	100.0 (732)

〈표 2〉 아버지의 가부장 역할

	계	성 별		혼인 여부		나 이		
		남	여	미혼	결혼	18~25세	26~33세	34~39세
찬 성	32.4	37.8	24.5	28.6	38.6	26.1	37.2	40.2
중 립	26.8	28.1	25.0	28.1	24.3	28.1	26.0	25.2
반 대	40.8	34.1	50.5	43.3	37.1	45.8	36.8	34.6
계 (실수)	100.0 (1489)	100.0 (880)	100.0 (609)	100.0 (903)	100.0 (581)	100.0 (702)	100.0 (535)	100.0 (254)

자(찬성 24.5%)의 시각이 이 문제에 관한 현격하게 다르다.

나이별로 보면 25세 이하(찬성 26.1%)가 26~28세(찬성 37.2%), 34~39세(찬성 40.2%) 그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 미혼자(찬성 28.6%)가 기혼자(찬성 38.6%)보다 남자의 가부장 역할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 더 두드러진다.

3) 보수적인 순결관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 65.5%, 반대 17.3%를 보이고 있다. 남·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25세 미만(찬성 60.2%), 26~33세(찬성 67.0%), 34~39

세(찬성 77.6%)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이다. 기혼자(72.9%)가 미혼자(찬성 60.6%)보다 보수적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다. (중졸 이하(찬성 71.6%), 고교학력(찬성 68.6%), 대학재학이상(찬성 61.9%))

반대로 “남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견해에는 찬성 51.3%, 반대 24.2%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남자들은 찬성 44.2%, 반대 28%를, 여자는 찬성 61%, 반대 18%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에도 아직 남자들의 순결에 관한 이기적인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39세(찬성 63.6%) 연령층이 18~25세(찬성 48.6%), 26~33세(찬성 49.2%) 연령층보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표 3〉

여자에 대한 순결관

	계	성 별		혼인여부		나 이			학 력		
		남	여	미혼	결혼	18~25	26~33	34~39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이상
찬 성	65.5	66.0	64.7	60.6	72.9	60.2	67.0	77.6	71.6	68.6	61.9
중 립	17.2	18.1	16.1	19.7	13.5	19.8	16.9	10.6	11.5	15.6	19.4
반 대	17.3	15.9	19.2	19.7	13.6	20.0	16.1	11.8	16.9	15.8	18.7
계 (실수)	100.0 (1498)	100.0 (880)	100.0 (609)	100.0 (903)	100.0 (581)	100.0 (702)	100.0 (535)	100.0 (254)	100.0 (130)	100.0 (620)	100.0 (732)

〈표 4〉

남자에 대한 순결관

	계	성 별		혼인여부		나 이			학 력		
		남	여	미혼	결혼	18~25	26~33	34~39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이상
찬 성	51.3	44.2	61.5	47.5	56.9	48.6	49.2	63.6	62.3	51.8	49.1
중 립	24.5	27.7	19.8	26.5	21.3	26.5	25.0	17.4	13.1	23.5	27.2
반 대	24.2	28.1	18.7	26.0	21.8	24.9	25.8	19.0	24.6	24.7	23.7
계 (실수)	100.0 (1498)	100.0 (877)	100.0 (610)	100.0 (903)	100.0 (578)	100.0 (702)	100.0 (533)	100.0 (253)	100.0 (130)	100.0 (620)	100.0 (731)

젊은 연령층이 퇴폐문화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우려된다. 대학재학 이상(찬성 49.1%)이 중졸 이하(찬성 62.3%)보다 낮은 찬성률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의미가 심장하다. 배운 사람의 도덕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가?

4) 건전한 생활관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은 압도적으로 인품(성격)(74.2%)을 꼽았고 경제력(9.1%), 용모

(5.8%)를 선택한 사람은 일부였다. 나이에 상관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다만 저학력자(중졸이하)는 인품(55%), 경제력(19%)을 나타내었다. 저학력자가 대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또 남자는 인품(75.9%), 경제력(7.4%), 용모(6.8%)순으로 꼽았고 여자는 인품(71.8%), 경제력(11.5%), 용모(4.4%)로 순위는 같으나 남자보다 조금 더 경제력을 중시하고 용모는 덜 따진다.

〈표 5〉

결혼조건

	계	성 별		학 력		
		남	여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이상
경제력	9.1	7.4	11.5	19.4	9.0	7.4
학 력	1.7	1.1	2.5	3.9	1.4	1.5
인품(성격)	74.2	75.9	71.8	55.0	73.3	78.4
용모(건강)	5.8	6.8	4.4	9.3	8.2	3.4
종 교	2.2	2.1	2.5	4.7	1.0	2.9
가 문	2.9	2.2	3.9	5.4	3.9	1.6
기 타	4.1	4.6	3.4	2.3	3.2	4.6
계 (실수)	100.0 (1486)	100.0 (878)	100.0 (610)	199.0 (129)	100.0 (621)	100.0 (731)

2. 청소년 및 교육문제

1)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은 단일 요인적이라기 보다는 다요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단일 기회적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누적적 경험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 그 자체도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과성의 단순비행에서부터 범죄성 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몇개의

질문으로 청소년 비행의 전모를 밝힌다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30%가 청소년 비행이나 탈선의 중요 요인으로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를 들고 있다. 중등교육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보편교육으로 된 이 시점에서 아직도 경쟁위주의 엘리트 교육풍토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표 6〉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원인

원 인	응답자 수	백분율
학교 주변의 유흥접객업소 및 악덕업자	170	11.4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446	29.9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304	20.3
불건전한 교우관계	72	4.8
여가활용장소 부족	72	4.8
T.V., 라디오, 잡지, 스포츠신문 등 대중매체 영향	268	17.9
정부의 청소년 정책 미비	131	8.8
기 타	31	2.1
계	1,494	100.0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속에서 능히 대학갈 수 있고 만족을 느끼는 학생들은 몇몇 안되는 성적 중·상위권 학생들이다. 성적 하위권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인정을 못받을뿐 아니라 누적된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자아개념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 자아개념과 함께 저항심, 공격적 본능 등이 싹터서 언제든지 기회가 닿는다면 비행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두번째로 많은 반응을 보인 문항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20.3%)이다. 청소년 비행에는 학교의 책임뿐만 아니라 가정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훌륭한 부모,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쉽다. 무관심과 과잉보호는 서로 상반되는 상황설정으로서 그 어느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다음으로 많은 반응을 보인 문항은 ‘대중매체의 영향’(17.9%)과 ‘학교 주변 환경불량’(11.4%)이다. 이 두개의 원인요인을 합하면 29.3%나 된다. 이 두요인 모두가 사회환경에

관련된 요인이다. 최근 스포츠 신문의 만화는 정말로 자식키우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일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잡하기 이를 데 없다. 영화, 비디오, 만화 등 저속하기 이를 데 없는 홍보매체에 우리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거기에다 학교주변에는 한 발자욱만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 나오기 힘든 각종 유흥업소들이 많다. 결국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로 크게 3등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에도 앞에서 언급된 3가지 요인에 반응이 집중되는 현상은 변함이 없었으나 연령 집단간에 다소의 반응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 풍토’에 대하여 18~25세 연령집단은 36.8%, 26~33세 연령 집단에서는 24.9%의 반응을 보인 데 반하여 34~39세 연령집단에서는 21.3%

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18~25세 연령집단이 13.9%, 26~33세 연령집단이 19.3%의 반응을 보인데 비하여 34~39세 연령집단의 응답자들은 26.0%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젊은 세대는 학교교육 풍토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그리고 청장년 세대는 사회풍토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2) 약물문제

“약물(히로뽕, 대마초, 본드 기타)을 사용하여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2%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 남자는 6.4%, 여자는 1.2%로 남자가 훨씬 많고 연령별로는 18~25세(5.8%), 26~33세(3.4%), 34~39세(1.6%)로 청년들에 약물복용이 더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이하(5.3%)가 대학이상(3.3%)보다 복용 경험이 많고 부유층(9.2%), 중산층(2.3%), 저소득층(5.8%)으로 부유층 청년들의 약물복용 경험이 많음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유층에 퇴폐주의가 만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복용했던 마약물은 대마초(42%), 본드(25%), 히로뽕(9%), 기타(17%)순이다.

<표 7>

약물복용

	계	성 별		나 이			경 제 령			학 령		
		남	여	18~25	26~33	34~39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제학이상
유경험	4.2	6.4	1.2	5.8	3.4	1.6	9.2	2.3	5.8	5.4	5.2	3.3
무경험	95.8	93.6	98.8	94.2	96.6	98.4	90.8	97.7	94.2	94.6	94.8	96.7
계 (실수)	100.0 (1485)	100.0 (877)	100.0 (608)	100.0 (700)	100.0 (532)	100.0 (253)	100.0 (131)	100.0 (787)	100.0 (567)	100.0 (129)	100.0 (619)	100.0 (730)

<표 8>

복용약물의 종류

종 류	응답자 수	백분율
히로뽕	4	7.7
대마초	22	42.3
본드	13	25.0
각성제	4	7.7
기타	9	17.3
계	52	100.0

3) 청년들이 선호하는 여가선용 방법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여가선용 방법”은

운동하기, 운동관람, 등산, 낚시 등 체육과 관계되는 것이 44.0%나 되었고 영화, 연극, 음악 등 예술과 관계된 것은 23.6%, 독서 12%, 라디오나 T.V.시청 6.9%를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등산·낚시(30.3%), 운동하기·관람(24.9%), 독서(7.6%) 순서로 체육활동이 55.2%나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영화·연극·음악감상(34.1%), 등산·낚시(18.8%), 독서(18.3%), 라디오나 T.V.시청(9.4%), 운동하기·관람(9.4%) 등 예술과 문학에 남자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여가선용 방법

	계	성 별		나 이			학 력		
		남	여	18~25	26~33	34~39	중졸 이하	고교 학력	대학재학 이상
운동 (판 략) 하 기	18.5	24.9	9.4	17.0	21.0	17.6	14.2	18.5	19.3
등 산 , 낚 시	25.5	30.3	18.8	21.7	30.2	27.2	27.5	27.7	23.7
연극·영화·음악감상	23.6	16.5	34.1	32.2	17.6	12.4	13.4	23.3	25.3
독 서	12.0	7.6	18.3	13.2	10.5	12.0	12.6	9.7	13.8
라 디 오 , T.V.시 청	6.9	5.1	9.4	4.3	7.3	12.8	16.5	7.3	4.8
장 기 , 바 독	2.8	4.2	0.8	1.6	3.9	4.0	0.8	3.4	2.7
기 타	10.7	11.4	9.2	10.0	9.5	14.0	15.0	10.6	10.4
계 (실수)	100.0 (1483)	100.0 (876)	100.0 (607)	100.0 (699)	100.0 (534)	100.0 (250)	100.0 (127)	100.0 (617)	100.0 (731)

나이별로는 25세 이하가 영화, 연극, 음악감상(32.2%)을 제일 선호한 것이 특기할만하고 26~33세는 등산, 낚시(30.2%), 34~39세도 등산, 낚시(27.2%)를 제일 선호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등산, 낚시(27.5%); 라디오나 T.V.시청(16%)을 많이 하고 고교학력이 등산, 낚시(27.7%), 연극·영화·음악 감상(23.3%), 대졸이상이 영화·연극·음악 감상(25.3%), 등산, 낚시(23.7%)를 제일 선호하였다.

4) 학생들의 현실참여 문제

“학생들의 현실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다”는 것에 대하여 찬성 49.3%, 반대 34.1%를 보여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남·여로는 비슷한 지지를 보이지만 나이별로는 18~25세(찬성 56.0%), 26~33세(찬성 47.5%), 34~39세(찬성 34.4%)로 청년층도 나이가 들수록 학생운동에 비판적임을 보여주고

〈표 10〉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시각

	계	나 이			학 력		
		18~25	26~33	34~39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학재학 이상
찬 성	49.3	56.0	47.5	34.5	40.6	42.9	56.1
중 립	16.6	18.7	14.4	15.5	14.4	17.8	15.4
반 대	34.1	25.3	38.1	50.0	45.3	39.2	28.4
계 (실수)	100.0 (1490)	100.0 (702)	100.0 (535)	100.0 (253)	100.0 (128)	100.0 (622)	100.0 (732)

있다. 하지만 중졸 이하(찬성 40.6%)와 대학재학 이상(찬성 56.1%)이 학생들의 현실참여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5)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응답자들은 교사의 체벌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체벌은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1%나 되고, ‘체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선택적 체벌에 대해서도 63%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체벌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9%를 점하고 있다. 즉 응답자의 2/3는 전면적이든 선택적이든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체벌로 인해 생기는 형사 및 민사재판의 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몇몇 학부모 단체 등에서 체벌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국민 전체의 의식은 아직 ‘체벌유용론’쪽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체벌이 인간의 발달이나 교육 그 어느 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재론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규명된 사실이다.

오히려 성장하는 청소년의 자아를 왜곡시키

<표 11>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

의 견	응답자 수	백분율
체벌은 좋은 교육방법이다	90	6.0
체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한다	939	62.9
체벌은 가능한한 가하지 말아야 한다	365	24.4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폐습이다	81	5.4
잘 모르겠다	19	1.3
계	1,494	100.0

고 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간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하루 속히 추방되어야 할 비민주적 요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전통에서는 체벌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왔으며, 더우기 일제 36년 동안의 일본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는 체벌이 교육의 강력한 수단으로 권장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그늘진 전통이 이 문체에 대한 우리의 의식개혁을 막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이지만 변화의 조짐

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령구분에 따라서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벌옹호의 경향을 띄어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체벌반대의 입장이 더욱 명료해진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생활속에서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체벌 허용의 풍토가 젊은 세대로 옮겨질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

〈표 12〉

연령구분에 따른 교사체벌에 대한 인식

	계	연 령 구 분		
		18~25	26~33	34~39
체벌은 좋은 교육방법이다.	6.0	4.1	7.1	9.1
체벌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된다	62.9	57.8	66.4	69.3
체벌은 가능하면 가하지 말아야 한다	24.4	30.3	21.1	15.9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5.4	7.0	4.3	3.5
기 타	1.2	0.9	1.1	2.8
계 (실수)	100.0 (1494)	100.0 (704)	100.0 (536)	100.0 (254)

다. 그외에 성별, 지역별, 학력별 등의 구분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6) 재수생 문제

재수생 문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처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재수생이란 범주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학의 문호는 좁고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많

은 데서 이와 같은 재수생이 생겨나게 된다. 현재 인구 비례로 본 한국의 대학생 인구는 세계 최고수준에 있다. 인구 10만명당 대학생 수는 세계3위이고, 남자인구 10만명당 남자대학생 수는 세계 1위이다. 대학생 정원이 낮게 책정되어서 재수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특이한 한국적 문화 때문에 재수생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재수생의 누적도 다요인적 원인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재수생 발생 원인

원 인	응답자 수	백분율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어서	1175	78.6
부모의 요청 때문에	126	8.4
전공학과와 공부를 하고 싶어서	30	2.0
대학에 진학하면 징집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5	1.0
재수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102	6.8
기 타	46	3.6
계	1,494	10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78.6%)이 재수생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를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

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온다. ‘출세’라는 말이 다양한 것을 함축하고 있고 또,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출세’는 각각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출세에 한뼉한 사람들처럼 국민 10명중 8명은 대학을 가야 인간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문제는 응답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의 여지없이 가야하는 보통교육 쥘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능력, 적성,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바가 대학진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4배쯤이 시험을 치르고 그중 대다수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중 상당수는 다음번의 도전을 위해 재수생 신분으로 남는다.

재수생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대체로 수용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미정착’, ‘미결정’의 경계인(*marginal man*)으로서 재수생은 하나의 분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재수생 누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8개의 응답지가 주어졌다.

제시된 8개의 해소방안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방안은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 해소’(48%)이다. 그 다음이 ‘고졸자에게 취업지도와 직장알선 강화’(22.8%)이고 세 번째는 ‘전문기술대학 정원 확대’(13.9%)이다. 나머지 5가지 방안은 1~4% 수준의 지지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임금격차에 못지 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고졸자에 대한 업무영역의 제한과 승진기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격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할지라도 고졸자는 항상 제한된 업무만을 맡게 되고 승진기회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면 생애에 걸치는 직업으로서는 문제가 있게 된다.

최근에 몇몇 기업에서 사내대학을 개설하여

〈표 14〉

재수생 누적 현상 해소 방안

해 소 방 안	응답자 수	백분율
대학정원을 재수생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증원	30	2.0
병역제도를 개선하여 고졸자에게도 대학입시에 관계없이 4년간 징집연기 기회를 부여	66	4.4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임	717	48.0
전문, 기술대학 정원을 많이 늘임	207	13.9
고졸자에게 취업지도와 직장알선을 강화	341	22.8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도록 진로지도 강화	59	3.9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2번까지로 제한	18	1.2
기 타	56	3.7
계	1494	100.0

고졸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것을 대학졸업으로 인정해주는 기업내규를 채택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학력이 지배하는 사회, 학력이 지배하는 기업이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와 기업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취업지도 및 직장알선의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런대로 진로지도, 취업지도 및 직장알선 등이 잘 되고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손조차 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학진학 희망자의 1/4만이 결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 3/4은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 1/4의 학생들만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3/4은 결국 대학 진학자들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진로지도를 해주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취업반의 운영이나,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전학허용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망되는 소이가 여기 있다.

전문·기술대학의 정원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이 세워져 있고 실천되고 있는 중이다.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전문대학생의 취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발전에 따라 전문대학은 많이 신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전문대학의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문제는 있다. 교육제도가 학생의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소화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대학제도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 부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욕구가 차단되고 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즉시든 또한 취업을 한

후이든 더 상위의 교육을 받고 싶을 때 그 문호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개방대학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고 대학 3~4학년을 중심으로한 야간대학도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재수생의 누적 해소 방안에 대한 지역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분석에서도 전체적인 선택 경향과 대체로 일치되었다.

7) 중·고등학교에서 더욱 필요한 과목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질문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학교 외적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이 질문은 바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표 15〉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더욱 필요한 과목

과목	응답자 수	백분율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본과목	94	6.3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 과목	876	58.6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202	13.5
취업기술 교육과목	276	18.5
기 타	46	3.1
계	1,494	100.0

1,494명의 응답자 중에서 876(58.6%)이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을 지적하고 있다.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택한 13.5%의 응답자들을 합하면 72%의 응답자들이 인격도야에 관련되는 과목을 택하고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나 출세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과목화된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6.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정말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과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절달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국·영·수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덕부재의 사회 현실에 대한 우려가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및 윤리과목’의 강조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소위 국민윤리에 해당되는 과목의 비중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란 교과간에 균형을 이루어야지 도덕 부재의 사회를 제건하기 위해서 국민윤리 과목만을 무작정 높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응답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입시준비교육을 전인교육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주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한 기술교과목이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두번째의 요구사항이란 점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은 취업을 위한 준비교육도, 인격완성을 위한 전인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에서 제시된 결과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희망사항이 함께 표출된 반응이다.

교육수준에 따라 분석한 자료는 이 점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 준다. 고등학교 재학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인성교육을 큰 비율로 지지하

고 있으나(61%), 국민학교 또는 중학졸업자는 그 지지도가 푹 떨어져 39.2%만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취업기술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저학력자의 30%가 지지하고 있으나 고학력자의 지지도는 약 17.4%에 그치고 있다.

인격완성을 위한 과목과 직업기술을 위한 과목은 그 어느 것도 경중을 가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인성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8) 교사에 대한 인식

교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때로는 성직자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전문가로, 때로는 노동자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교사의 위치는 변한다. 이와 같은 가변성이 교직사회에 여러가지 신분상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도 노동자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성향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16〉 교사에 대한 인식

반 응 성 향	응답자 수	백분율
강한 찬성	341	22.8
약한 찬성	355	23.8
찬성도 반대도 아님	258	17.3
약한 반대	243	16.3
강한 반대	297	19.9
계	1,494	100.0

우선 ‘교사도 노동자’라는 입장에 대하여 강하든 약하든간에 찬성하는 사람은 46.6%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36.2%로 나타났다. 그리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반응유보가 17.1%나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교사관에 상당한 변혁이 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지식소유자로서 선비 또는 전문직으로 우대되어 왔으나 노동자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관점이다. 교원노조 사태로 인해서 교사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많이 흔들린 결과로도 볼 수 있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매우 미흡한 데서 파생된 결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교사도 노동자’라는 견해는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격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정당한 일을 하고 그 댓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보편적인 직업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사를 노동자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사도 노동자’라는 견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7〉 연령구분에 따른 교사관

	계	연 령 구 분		
		18~25	26~33	34~39
찬 성	46.6	50.4	46.9	35.8
중 립	17.2	18.4	18.3	11.9
반 대	36.2	31.2	34.8	52.3
계 (실수)	100.0 (1494)	100.0 (703)	100.0 (535)	100.0 (254)

또한 응답자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교사관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사를 노동자로 보는 견해가 강하

게 나타났다. ‘교사도 노동자’라는 견해에 대하여 본조사에서 응답자에 포함된 교사들의 반응도 대체로 노동자관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35명의 교사를 분석한 결과 57.2%의 교사가 ‘노동자’관에 찬성하였고 37.2%가 반대하였다.

〈표 18〉 학력구분에 따른 교사관

	계	학 력 구 분		
		중졸이하	고교학력	대제이상
찬 성	46.6	37.7	43.3	51.4
중 립	17.2	16.1	17.8	16.5
반 대	36.2	46.2	38.9	32.1
계 (실수)	100.0 (1494)	100.0 (140)	100.0 (622)	100.0 (732)

그러나 지역구분, 성별구분, 출생지, 수입, 경제수준 구분 등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에 교사의 위상이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II.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청년정책의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행된 원래의 조사는 사회가치관,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경제현안에 대한 태도,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식과 정치제도에 대한 의견 등 7개 영역에 걸쳐서 18~30세 연령층의 청년 1,49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는 7개 영역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회가치관과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만을 요약하였다.

응답자들의 사회가치관은 크게 개인주의적 성향, 가부장 역할의 약화, 보수적인 순결관, 건전한 결혼관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두개의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고 바로 사회가치관의 특징을 요약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가치관에 있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어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현대의 산업 사회가 그들에게 은연중 요구하는 사회적 덕목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돈하기 쉬운데,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피해까지도 개의치 않는 것이 이기주의라면, 개인주의는 자기완성을 위해서 스스로 소임을 다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도 이 개인주의적 성향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부모의 가부장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국가사회의 민주화는 가정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가정은 가부장체제로 남아 있는데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기대일지도 모른다. 가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서운한 일일지는 몰라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부장의 역할을 수용하지 않는 현상은 기초사회 집단인 가정의 민주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순결관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여자든 남자든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유교적 전통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결론같이 보이지만 찬성률이 65.5%이고 찬성하지 않는

입장도 34.5%에 달해 상당한 변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세분화된 분석에서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에의 찬성율이 낮아지고 있음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결혼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품(성격)으로 나타났다. 실제의 상황에서는 경제력, 학력, 용모 등도 고려하겠지만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인품을 제1로 꼽고 있다. 어쨌든 권력, 금력, 학력으로 오염된 사회에서 그래도 이상적으로는 인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았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년들의 사회가치관은 건전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전한 사회가치관이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퇴폐문화를 추방하고 과소비를 자제해서 경제정의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에 모범이 되는 도덕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및 교육문제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는 서로 엉켜진채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 부처내에서 청소년 문제의 담당은 국무총리실에서 문교부로, 내무부로, 그리고 최근에는 문교부에서 다시 체육청소년부로 옮겨졌다. 청소년 및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업무의 책임 한계가 더욱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청소년 및 교육문제는 학교나 가정, 사회, 정부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거리로 대처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자신과 그가 속한 가정의 문제이지만,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적위주의 학교풍토, 학교 외적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은 전인교육을 포기한채 입시준비 교육에 온 힘을 다 쓰고 있다. 학교교육속에서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여기에서 생긴다.

학교교육에서 전인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교과목 수를 현재보다 대폭 줄이고 인성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이나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집단적인 좌절감을 안겨주는 현행 입시제도는 개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 졸업자에게 대학에는 무조건 가야한다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불어 넣어주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학교에서의 학생체벌은 아직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성숙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체벌이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교사들의 자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학부와와 교사와 문교부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법 시행령이나 교원지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재수생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냐?”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교사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교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사회가 하여야 할 것이며,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교사들은 스스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더욱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및 교육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몇가지 건의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접하는 학교환경과 학교외 환경이 더욱 교육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청렴한 사람이 공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소비를 추방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신체와 정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체육, 오락,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비행의 원인중에서 스포츠신문 등 대중매체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T.V.프로그램, 각종 잡지, 스포츠 신문 등의 내용을 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법 시행령에 선언적으로라도 체벌금지의 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재수생 누적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종합적 처방

이 구안되어야 한다.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치
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
한 경우, 정부는 손비인정 등 기업을 지원해주
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인
성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우선 교과

목 수의 축소와 함께 교과 내용의 정선이 필요
하다.

여덟째,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교원지위법’은 하
루 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법 내용에는
교원의 경제적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자현(1977), “방황하는 청소년”, 국가발전과
청소년, 배영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편문택, 김영철(1978), “소년범죄에 관한 연
구”, 연구보고서, 문교부, 사회과학계 2,
1978.
김광웅편(1990), 한국의 선거정치학, 나남.
김기석, 정애자(1978), “청소년 비행의 감별척
도에 관한 연구”, 행동과학연구 3, 고대
행동과학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편(1980), 근로자 의식구조 조
사보고,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옥(1984),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정화
인쇄.
박용현(1982),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의식개혁의 필요성과 실천방향, 사회정화
위원회.
박용현, 강우철, 이관용, 임채완(1980), 현대

-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1979), “한국근로자와
관리자의 직업의식과 노사정책에 관한 연
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권 제3호.
유기형(1982), “청소년의 집단비행에 관한 연
구”, 사회과학논총,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제1권 제2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84), 청소년 환경세미
나 참고자료.
전성연(1989), “학교교육과 청소년의 정치사회
화”, 교육과 정치사회화, 한국여성정치문
화연구소, 제2회 학술 세미나.
조정원, 현종민(1987), “한국대학생의 현실참
여에 관한 연구”, 전환기의 한국정치, 한
국정치학회, 제7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청소년육성위원회(1990), 청소년백서.